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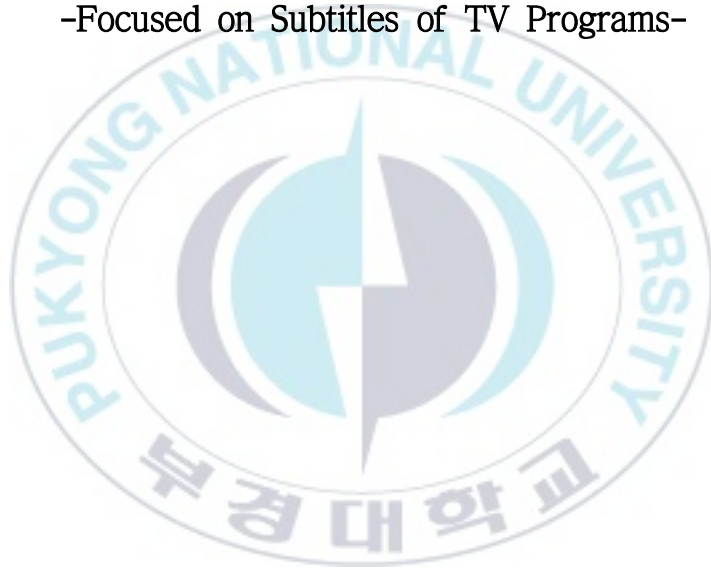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신조어 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TV 프로그램 자막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Meaning and Utilization of Newly Coined Words
-Focused on Subtitles of TV Programs-



2023 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정 희

문학석사 학위논문

신조어 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TV 프로그램 자막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Meaning and Utilization of Newly Coined Words
-Focused on Subtitles of TV Programs-

지도교수 채 영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정 희

이정희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2 월 17일

언 어 학 박 사 김 희 섭 (인)

문 학 박 사 권 성 미 (인)

문 학 박 사 채 영 희 (인)

〈목 차〉

표 목 차	ii
그 림 목 차	ii
국 문 요 약	iii
1.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3
1.3 선행연구	4
2. 이론적 배경	7
2.1 감각어의 개념 및 분류	7
2.1.1 음운론적 감각어	8
2.1.2 형태론적 감각어	13
2.1.3 의미론적 감각어	29
2.1.4 감각어의 분류	34
2.2 신조어의 의미	38
3. 분석모델	42
4. TV 프로그램 자막의 감각어 의미 분석	43
4.1 음운론적 감각어의 신조어	43
4.2 형태론적 감각어의 신조어	45
4.3 의미론적 감각어의 신조어	47
4. 소기결론	49
5. 제언	50
ABSTRACT	51
참고문헌	53

〈표 목 차〉

〈표 1〉 TV 프로그램 장르별 신조어 사용 실태	2
〈표 2〉 연구 사례 대상	4
〈표 3〉 첫소리의 자음대립에 따른 음운론적 감각어 예시	9
〈표 4〉 끝소리의 자음대립에 따른 음운론적 감각어 예시	10
〈표 5〉 모음대립에 따른 음운론적 감각어 예시	12
〈표 6〉 단순구조의 감각어	14
〈표 7〉 접두사에 의한 파생	15
〈표 8〉 ‘-하’에 의한 파생	16
〈표 9〉 ‘-직하’에 의한 파생	17
〈표 10〉 ‘-어하다’의 형태 파생	18
〈표 11〉 시각에서 청각으로의 전이	30
〈표 12〉 감각별 전이의 예시	31
〈표 13〉 색채어의 종류 및 분류 기준	35
〈표 14〉 미각어의 종류 및 분류 기준	36
〈표 15〉 온도어의 종류 및 분류 기준	37
〈표 16〉 공간감각어의 종류 및 분류 기준	38

그 림 목 차

〈그림 1〉 신조어 사용 빈도	40
〈그림 2〉 분석모델	42
〈그림 3〉 신조어 남사친	43
〈그림 4〉 신조어 입 속 PARTY	43
〈그림 5〉 신조어 졸똥모드와 취향저격	45
〈그림 6〉 신조어 떼창	46
〈그림 7〉 신조어 쿨병	47
〈그림 8〉 신조어 핑크빛 기류	48

국 문 요 약

신조어 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TV 프로그램 자막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신조어의 발생과 최근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는 감성을 유용하게 전달하는 감각어가 매우 발달해 있다. 감각어에 대한 연구는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감각어의 내용분석 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한편, 언어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조어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나, 언중의 사용 연령과 빈도의 폭이 크다는 점, 끊임없이 새로운 어휘가 재생산되고 자연 소멸한다는 점, 신조어 중 일부만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는 점에서 그 연구 가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조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대중성과 오락성을 드러내는 어휘라는 점에서 신조어를 연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감각어 형태의 신조어가 활발히 사용되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TV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을 대상으로 신조어 의미와 활용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순서는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측면에서 감각어의 개념을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특징을 파악한다. 또한, 감각어의 종류를 색채어, 미각어, 온도어, 공간감각어, 공감각적 표현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감각어가 향유하는 형태와 종류를 정리한다. 그리고 신조어가 현시대에 미치는 의의를 살펴보고, 그 가치와 실용성을 검토한다. 이후 분석모델을 도출하고 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이후 분석 대상을 기준으로 감각어의 신조어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맥락상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가를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감각어를 1) 음운론적 감각어, 2) 형태론적 감각어, 3) 의미론적 감각어로 분류하고 이를 1) 색채어, 2) 미각어, 3) 온도어, 4) 공간감각어, 5) 공감각적 표현 다섯 가지의 형태와 종류를 두고, 신조어의 대중적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TV 예능 프로그램 속 자막에서 감각어의 신조어가 사용된 장면을 연역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와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신조어의 등장과 확산이 가지는 시사점까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신조어가 어떻게 탄생하고 확산되며, 현재의 활용 실태를 파악한 후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인 신조어를 감각어로 한정하였다. 감각어는 신체의 내·외부 자극에 의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로써,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서를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감각어를 기준으로 음운론적으로, 또 형태론적과 의미론적 세 가지 측면의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의 TV 프로그램 자막에 나타나는 새로운 감각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어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정보의 교류와 의사소통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모든 문화, 산업, 교육,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중요한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동시에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새로운 언어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단어 형성에 대한 개념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단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는 어근(root), 어간(stem), 어기(base) 세 가지가 있다.¹⁾ 어근이란 어미와는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 없으며, 또한 자립형식도 될 수 없는 단어의 중심부이다. 어간은 어미와 집적 결합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부이다. 어기는 어간과 어근을 포괄하는 언어의 형식이다. 여기서 어기는 어근과 어간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어기로 통일할 수 있다. 이는 완전어기와 불완전어기로 나뉘고, 각각 단일어기와 복합어기로 다시 세분화 된다. 이후 파생법 또는 합성법으로 단어가 형성되는데, 이는 신조어 단어의 탄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단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1) 김정은(1994) 참조

자립적인 문장 구성 단위으로써, 크게 단일어와 파생어, 합성어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구분할 수 있다.²⁾ 단일어는 어기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써 단어형성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파생어는 어기에 접사가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복합적 구성이고, 합성어는 어기와 어기가 합쳐져 형성된 복합적 구성이다. 신조어는 보통 뜻을 포함한 단일어의 통합이 주를 이루기에 복합어인 파생어와 합성어로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는 조어력이 강하며 유연성이 큰 복합어를 크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 사물, 개념 등에 대한 명명이 필요할 때 합성법과 파생법에 의해 생산적인 새로운 단어의 형성을 촉진한다. 이에, 신조어의 연구는 언어학적 가치 외에도 한국의 사회현상과 더불어 시대상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 TV 프로그램 장르별 신조어 사용 실태

구분	신조어 수	평균
예능(14개)	535건	38.2건
보도 및 시사(9개)	26건	2.9건
스포츠(6개)	33건	5.5건

이러한 신조어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TV 프로그램에서도 신조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다수 등장한다. 위의 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상파, 종편, 케이블 TV에서 쓰인 신조어의 수이다.³⁾

위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단어는 깔끼빠빠, 단호박, 핵잼, 인싸 등이

2) 서정수(1990) 참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mainPage.do>

사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언어파괴 현상이라는 주장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발전 양상이라는 두 주장으로 논의되고는 한다. 하지만 대중성이 중시되는 TV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논의되고 있는 논제인 만큼 신조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함은 지당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감각어란 사람의 감각기관이 어떤 대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⁴⁾ 또한, 사물 자체의 속성이나 존재의 설명, 그리고 인간 신체 내부의 어떠한 감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⁵⁾ 감각어는 크게 색채어, 미각어, 온도어, 공간감각어, 공감각적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감각어는 기타 외국어에 비해서 포용력이 넓은 장점을 바탕으로 크게 발달했다. 또한, 이들 감각어는 체계적이면서도 제한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쓴맛을 영어로 나타내면 ‘bitterness’로 쓰이지만, 한국어 미각 감각어에는 ‘쓰다, 씹싸름하다, 씹싸래하다, 씹쌀하다, 씹쓸하다, 쓰디쓰다’ 등 총 26개의 감각어를 가지는 등이다. 즉, TV 프로그램 자막에 적용된 감각어 중 신조어들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상에 따른 언어의 발전 양상과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언중이 수용 가능한 언어의 감각적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의 방법은 먼저, 이론적 배경을 통해 감각어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고찰하여 세 가지 감각어 개념과 다섯 가지 분류로 정립한다. 그리고 신조어의 의미를 공고히 한 후 연구를 위한 분석모델을 도출한다. 분석 모델은 감각어를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감각어 세 가지와 색채어, 미각어, 온도어, 공간감각어, 공감각적표현 다

4) 박현선(2016) 참조

5) 정재윤(1989) 참조

섯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신조어의 의의와 함께 TV 프로그램 자막을 분석하여, 현재 신조어의 활용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 대상인 TV 프로그램 자막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신조어의 등장과 확산이 가지는 시사점까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 대상은 대중성과 오락성이 입증된 프로그램 중 자막이 활발히 사용되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며, 아래의 표는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연구 사례 대상

프로그램명	연애의 참견	아는 형님	맛있는 녀석들
채널명	KBS joy	JTBC	iHQ
연도	2020.01.07.~	2015.12.05.~	2015.01.30.~

1.3. 선행연구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감각어, 신조어, TV 자막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여 국내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감각어를 검색한 결과, 학술논문 62건, 학위논문 73건, 단행본 42건, 연구보고서 9건으로 총 187개가 집계됐다. 박현선(2016)은 ‘음식 맛 표현 감각어 의미 연구’에서 월간 간행물에서 수집한 어휘를 토대로 음식의 맛 표현 감각어의 의미와 의미 전이를 고찰하였다. 또한 유쾌(2020)는 ‘한·중 음식 맛 표현 감각어 대응양상 연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맛 표현 감각어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장취형(2017), 유서양(2021) 등도 미각어에 관한 감각어를 연구하였으며,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했다. 주효아(2020)는 ‘한·중 온도 관련 감각어 의미의 대

조 연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온도 감각어를 공통점과 각각의 생성을 분석 및 고찰하였다.⁶⁾ 여, 군(2010) 또한 한·중 간의 온도 감각어를 인지의미론적으로 대조하여 결론지었다.⁷⁾ 이외에도 송지혜(2009)는 ‘온도감각어의 통시적 연구’에서 온도감각어를 분석하여 개념을 정립하였다.⁸⁾ 이외에도 감각어에 대한 연구는 특별 수업을 위한 연구와 신체화에 기초한 감각어, 후각에 집중한 감각어, 공간 감각어의 다의 구조 연구 등이 있었다. 특히, 강석준(1989)은 현대국어의 감각어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감각어를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고찰을 통해 각각의 특징을 연구하였다.⁹⁾ 최현배(1987)¹⁰⁾와 천기석(1984)¹¹⁾이 파악한 형용사의 의미론적 하위 분류인 속결그림씨를 토대로 감각어류를 그 하위 부문으로 분류하여 의미를 정립하였다. 그 연구사적 신뢰를 토대로, 본 논문 2장의 감각어의 개념 정립에 적극 활용하였다.

신조어를 검색한 결과, 학술논문 887건, 학위논문 865건, 단행본 586건, 연구보고서 186건으로 총 2,526건이 도출됐다. 이는 신조어라는 키워드가 오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국어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반증한다. 이정은(2014)은 ‘신조어를 활용한 중국 문화지도방안:외국어계열고등학생을 대상으로’에서 언어의 교육적 활용성을 바탕으로 중국어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에게 중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함양하기 위해 중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입증하는 신조어를 연구 및 정리하였다.¹²⁾ 이는 신조어가 내포하고 있는

6) 주효아, 한중 온도 관련 감각어 의미의 대조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석사학위논문, 2020.

7) 여, 군, 한중 온도감각어의 인지의미론적 대조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8) 송지혜, 온도감각어의 통시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9) 강석준, 현대 국어의 감각어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9.

10)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정음문화사, 1987.

11) 천기석, 국어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연구, 서울:형설출판사, 1984.

12) 이정은, 신조어를 활용한 중국문화지도방안:외국어계열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기반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이정해(2014) 또한 ‘중국의 사회변화와 신조어 생성관계 연구’에서 신조어가 사회변화를 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¹³⁾ 김남중(2013)¹⁴⁾, 박기천(2013)¹⁵⁾, 차이펜(2013) 또한 신조어의 탄생 배경을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 및 사회 배경을 밝히고자 연구하였다. 이처럼 사회 및 문화를 위한 연구 외에도 신조어에 관한 연구는 교육 또는 교수법을 위한 신조어 연구, 심리학, 언어학적 연구, 네트워크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조어에 관한 연구는 사회 및 문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가장 크게 주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었다.

TV 자막 키워드는 학술논문 217건, 학위논문 267건, 단행본 1,483건, 연구보고서 24건으로 총 1,991건이 도출되었다. 박재호(2013)¹⁶⁾와 남지영(2009)¹⁷⁾ 등은 TV 프로그램 자막을 표현 및 활용성을 기반으로 특성을 분류함을 시도하였다. 또한, TV 자막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 번역, 대중의 사용패턴, 표현기법, 수용자의 관점, 예술성, 오락성, 대중성 등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TV 자막에서의 신조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TV 자막의 감각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TV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서 신조어로 구현된 감각어에 대한 연구는 유의미한 연구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2014.

- 13) 이정해, 중국의 사회변화와 신조어 생성관계 연구 : 2006년 이후의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중국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14) 김남중, 인터넷 일본어 신조어의 특징과 생성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15) 박기천, 현대 중국어 문화콘텐츠 신조어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16) 박재호, TV 영상 자막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TV 예능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언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 17) 남지영, TV 자막 언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2009.

2. 이론적 배경

2.1. 감각어의 개념 및 분류

본 장에서는 감각어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해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감각어는 인간의 감각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 감각기관의 어떤 자극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동작성 감각어와 상태성 감각어로 명명한다.¹⁸⁾ 여기서 동작성 감각어는 시각동사, 청각동사, 후각동사, 미각동사 네 가지로 세분화되고, 상태성 감각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외에 외피감각어와 유기감각어로 나뉜다. 외피 감각어는 촉각동사, 온각동사, 냉각동사, 통각동사로 다시 세분화된다.

한편, ‘감각’에 대해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첫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감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¹⁹⁾

- (1) 눈이나 코, 귀 또는 혀의 살갓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
- (2)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

둘째, 생명과학대사전에서는 감각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신체의 내부와 외부에서 생긴 자극으로 느끼는 의식의 체험으로써,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감각의 다섯 가지 중 특히, 다섯 번째 감각을 의미한다.

18) 권주예, 감각동사의 의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2.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이처럼 감각은 외부의 자극을 인체가 직접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람의 감각기관이 다른 대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을 ‘감각어’라고 한다. 본 장에서는 감각의 범위를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다섯 가지 감각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음운론적 감각어, 형태론적 감각어, 의미론적 감각어 세 가지로 나눠 분류하고자 한다.

2.1.1. 음운론적 감각어

음운론이란 언어학에서 특정적이거나 개별적인 언어 또는 소리 체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또한, 음운론은 사용되는 언어 또는 언어를 포함한 분야에서 어떻게 소리가 기능하는지를 기술하는 분야이다. 음성학을 바탕으로 발동부-발성부-조음부의 3대 기류 과정으로 발현되는 소리에서,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에 따라 발음되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음운론의 기본 가정은 분절작용(segmentalization)이며, 말소리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지식을 담는, 의미 분화의 작용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웅은 1982년 연구에서 음성상징(Sound Symbolism)에 대해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언어 표현이라고 언급하였다.²⁰⁾ 이는 단어의 뜻과 쓰임 등이 나오는 소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정서적 의미와 유의미하게 작용하는데, 음운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음절과 어근의 전 범위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음절의 첫마디 소리에서는 자음의 세 가지 측면의 대립을 통해서 나고, 가운데 소리에서는 모음의 대립에 의해 난다. 그리고 끝소리에서는 자음의 대립을 통해 정도의 차이를 내포하는 정서적 의미의 분화가 나타난다. 이근수

20) 허웅, 국어음운학, 정음사, 1982.

(1969)는 중세국어에서 감각어의 음운 간의 대립은 객관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는 정서적 의미의 분화가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감각어에서는 음운 간의 대립이 단지 정서적 의미의 차이인,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다.

i. 자음의 대립

자음 간의 대립은 음절에서, 첫소리와 끝소리에서 각각 나타난다. 첫소리에서는 삼지적 상관속에 의해서 예사소리(unaspirated), 거센소리(aspirated), 된소리(tense)에 의한 3중 대립과 2중 대립이 나타난다. 음절 소리의 자음대립은 정서적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표 3〉 첫소리의 자음대립에 따른 음운론적 감각어 예시

구분	(1) 첫소리의 자음대립
ㄱ	/ k / : / k ⁿ / : / k ⁹ /의 대립 = 감감하다 : 컴컴하다 : 감감하다, 새콤하다 : 새콤하다, 거칠다 : 꺼칠다 등
ㄴ	/ t / : / t ⁿ / : / t ⁹ /의 대립 = 단단하다 : 탄탄하다 : 아득하다, 땀땀하다 : 다습다, 아뜩하다 : 따습다 등
ㄷ	/ p / : p ⁿ / : / p ⁹ /의 대립 = 버근하다 : 파근하다 : 빼근하다, 가분하다 : 가뿐하다, 부엌다 : 뿌엌다, 껍썩하다 : 뻑뻑하다 등
ㄹ	/ c / : / c ⁿ / : / c ⁹ /의 대립 = 새지근하다 : 새치근하다, 지르르하다 : 찌르르하다, 달착지근하다 : 달짝티근하다 등
ㅅ	/ ɮ / : / s ⁹ /의 대립 = 서느렁다 : 썩느렁다, 살랑거리다 : 쌀랑거리다, 살살하다 : 쌀쌀하다 등

본 예시들은 객관적인 의미의 차이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1) 예사소리, 2) 된소리, 3)거센소리 세 가지의 순서로 어감이 점차 강해질 뿐이다.

〈표 4〉 끝소리의 자음대립에 따른 음운론적 감각어 예시

구분	끝소리의 자음대립
ㄱ	/ n / : / l /의 대립 = 눅신하다 : 눅실하다, 산산하다 : 살살하다 등
ㄴ	/ n / : / k /의 대립 = 질편하다 : 질퍽하다, 탄탄하다 : 딱딱하다 등
ㄷ	/ l / : / s / , / ɲ / : / s /의 대립 = 거칠다 : 거칠다, 멍멍하다 : 밋밋하다 등
ㄹ	/ k / : / s /의 대립 = 확확하다 : 핫핫하다, 산뜻하다 : 산뜻하다 등

음절 끝소리의 자음대립은 향명음과 장애음이 주가 되나 향명음과 유음, 장애음과 장애음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끝소리의 음성상징에 있어서는 향명음이 장애음보다 음의 세기가 가볍고 맑으며, 유음과 향명음중에서는 유음이 더 울동적인 어감을 띤다.

(3) ㄱ. 옷감이 눅신하다.

ㄴ. 옷감이 눅실하다.

위의 예시에서 ‘눅신하다’와 ‘눅실하다’는 경험자의 주관적인 물체의 표면에 대한 감촉을 나타내는 촉각어으로써 ‘눅실하다’는 ‘눅신하다’보다 축축하고 부드러움을 더 강하게 나타낸다.

(4) ㄱ. 우리 학교의 운동장이 질편하다.

ㄴ. 우리 학교의 운동장이 질퍽하다.

위의 예시에서 ‘질편하다’와 ‘질퍽하다’는 땅에 물기가 있어서 평평하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써 ‘질편하다’는 ‘질퍽하다’보다 [+평면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말이며, ‘질퍽하다’는 ‘질편하다’보다 [+촉습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5) ㄱ. 나는 얼굴이 확확했다.

ㄴ. 나는 얼굴이 핫핫했다.

위의 예시에서 ‘확확하다’와 ‘핫핫하다’는 뜨거운 기운이 몹시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써 ‘핫핫하다’가 ‘확확하다’에 비해 강한 어감을 준다.

ii. 모음의 대립

모음 간의 대립은 보통,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두 대립이 어감을 느끼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이는 가벼움과 얇음과 깊고 무거움의 대립을 보여 준다. 이승녕(1958)은 앞선 사전연구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을 통한 어감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분화하는 양상에서, 모음 간의 대립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두 가지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낱말 내에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두 가지의 연결된 방식은 다분히 음절의 연결 법칙인 모음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반하여 감각어의 모음 대립은 조어론적 입장에 서는 것으로 주로 어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모음은 상호 간의 또는 음성모음 상호 간에도 발생하며, 이중으로 대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중대립으로도 발생한다. 따라서 모음대립에 의한 의미의 분화는 같은 어근을 갖는 낱말들 사이의 모음의 교체를 파악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다.

〈표 5〉 모음대립에 따른 음운론적 감각어 예시

구분	감각어의 모음대립
a / ə	/ a / : / ə /의 대립 = 답답하다 : 텅텅하다, 칼칼하다 : 켄켄하다, 가칠하다 : 거칠하다, 빠근하다 : 빼근하다 등
a / i	/ a / : / i /의 대립 = 삼삼하다 : 심심하다, 짹짹하다 : 찹질하다, 짹짜레하다 : 찹찌레하다 등
a / ĩ	/ a / : / ĩ /의 대립 = 달콤하다 : 들콤하다, 따뜻하다 : 뜨뜻하다, 따갑다 : 뜨겁다, 가렵다 : 그렵다 등
æ / i	/ æ / : / i /의 대립 = 배리다 : 비리다, 새다 : 시다, 매지근하다 : 미지근하다 등
æ / e	/ æ / : / e /의 대립 = 매스껍다 : 메스껍다
o / u	/ o / : / u /의 대립 = 보양다 : 부엡다, 고소하다 : 구수하다, 포근하다 : 푸근하다, 축축하다 : 축축하다
w a / u	/ w a / : / u /의 대립 = 와작와작하다 : 우작우작하다 등
ϕ / y	/ ϕ / : / y /의 대립 = 꺾꺾하다 : 퀴퀴하다 등
i / o	/ i / : / o /의 대립 = 피둥피둥하다 : 포둥포둥하다 등
ə / u	/ ə / : / u /의 대립 = 허출하다 : 후출하다 등
ə/æ/ĩ	/ ə / : / æ / : / ĩ /의 대립 = 단단하다 : 댄댄하다 : 든든하다 등
a/o/	/ a / : / o / : / u /의 대립

u	= 마르다 : 모르다 : 무르다 등
a/i/ə	/ a / : / i / : / ə /의 대립 = 자리다 : 지리다 : 저리다 등
a/o/ĩ	/ a / : / o / : / ĩ /의 대립 = 아스스하다 : 오스스하다 : 으스스하다 등
a/ə/u	/ a / : / ə / : / u /의 대립 = 빠득하다 : 빼득하다 : 뿌득하다 등
æ/i/e	/ æ / : / i / : / e /의 대립 = 매끈하다 : 미끈하다 : 메끈하다 등
o/wa/u	/ o / : / wa / : / u /의 대립 = 훗훗하다 : 왓왓하다 : 훗훗하다 등
o/y/u	/ o / : / y / : / u /의 대립 = 노리다 : 누리다 : 누리다 등
a/o/u	/ a / : / o / : / / : / u /의 대립 = 파르다 : 포르다 : 퍼르다 : 푸르다 등
o/ϕ/u/y	/ o / : / ϕ / u / : / y /의 대립 = 노리다 : 뇌리다 : 누리다 : 누리다 등
a/o/ə/u/ĩ	/ a / : / o / : / ə / : / u / : / ĩ /의 대립 = 함함하다 : 흠흠하다 : 험험하다 : 흠흠하다 : 흠흠하다 등

위와 같이 어근부의 모음대립은 2중 대립부터 5중 대립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양성, 음성모음의 구분으로 모음조화 현상과는 달리 양성모음 또는 음성모음 상호간에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1.2. 형태론적 감각어

형태론적 감각어는 단어 어형의 변화를 다루는, 국어 문법의 한 분야인 형태론을 띄는 감각어이다. 여기서 형태론적은 특정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변화되어 표현되는 이형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형태소인 [나]의 이형태는 ‘가’를 제외한 조사 앞 /나, 조사 ‘가’ 앞/

내이다. 또한, 형태소인 [에]의 이형태 무정물 명사 뒤 /에, 유정물 명사 뒤 /에게이다. 형태소 [어]의 이형태는 ‘하-’를 제외한 어간 뒤 /어, 어간 ‘하-’ 뒤 /여 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특정 조사나 특정 어간, 특정 명사 등등, 형태적인 조건에 따라 상이해진다.²¹⁾ 국어 단어의 내부구조는 어간부를 형성하는 형태소화 비어간부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의 상호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낱말의 어간구조는 단순구조와 합성구조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순구조는 단일형태소로 된 것을 가리키며 합성구조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형태소로 된 것을 말한다. 후자는 다시 그 직접성분중에 파생접사를 포함한 파생구조와, 단일한 어간 또는 어근 간의 복합형태인 복합구조로도 나뉜다. 파생구조로 이루어진 낱말을 파생어 복합구조로 이루어진 낱말을 복합어라고 하여 단순어와 구별하기도 한다.

i. 단순구조

감각어 중 단순구조로 이루어진 형태를 각 감각별로 보면, 아래와 같은 낱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6〉 단순구조의 감각어

구분	예시
시각	ㄱ. 밝다 맑다 희다 검다 붉다 노랗다 푸르다 어둡다 등 ㄴ. 짧다 길다 작다 크다 낮다 높다 두껍다 얇다 등
청각	술다
미각	달다 짭다 맵다 시다 쓰다 짜다 싱겁다 등
후각	냄다 구리다 노리다 비리다 지리다 등

2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main.do>

촉각	가볍다 가볍다 거칠다 덥다 무겁다 쓰리다 차다 저리다 춥다 (손 등이) 곱다 아프다 마르다 등
-----------	---

ii. 파생구조

파생구조는 크게 첫째, 접두사에 의한 파생, 둘째, 접미사에 의한 파생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접두사에 의한 파생은 수요가 매우 적다. 이는 주로 강세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파생되었다.

〈표 7〉 접두사에 의한 파생

구분	항목	예시
시각	드- 새(새)- 시(시)-	드넓다 드높다 드맑다 새(새)노랗다 새(새)빨갳다 새(새)까맣다
미각	검-	검쓰다
촉각	무- 설(슬)- 매-	무덥다 설(슬)미지근하다 매시근하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은 접두사에 의한 파생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다의 형태는 그 수요가 매우 많으며, 그중에는 단일어기에 -하가 연결된 단어와 같은 어기의 반복에 -하가 연결된 단어, 기타 같지 않은 두 어기에 -하가 연결된 단어 등이 존재한다.

〈표 8〉 ‘-하’에 의한 파생

구분	예시
시각	희끔하다 환하다 아련하다 거무레하다 어둑어둑하다 파 른하다 어슬하다 투 명하다 방그레하다 노르스름하다 등
청각	폭삭하다 번거하다 짹짹하다 조용하다 은은하다 떠들썩 하다 소란하다 나직하다 잠잠하다 멍멍하다 으스스하다 등
미각	짹짹하다 씹쓸하다 달콤하다 얼근하다 뽕뽕하다 새콤 하다 건건하다 시큼하다 매콤하다 훈감하다 시치근하다 등
후각	비릿하다 매캐하다 구수하다 노릿하다 고리타분하다 퀴 퀴하다 물썩하다 향긋하다 배릿하다 노리치근하다 등
촉각	서늘하다 폭하다 화끈하다 무름하다 단단하다 미지근하 다 아슬하다 따뜻하다 거칠하다 눅신하다 딱딱하다 등

‘~거리다’의 형태는 대부분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파생되었으며 매우 생산적이다. 또한 의성어와 의태어 즉 상징어의 특징인 음성 상징현상에 의한 자음과 모음의 대립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 (6) 가물거리다 느글거리다 반질거리다 선뜻하다 아물거리다
간질거리다 따끔거리다 반짝거리다 아른거리다 화끈거리다
사각거리다 육신거리다 미끈거리다 흐늘거리다 등

‘-업’의 형태는 대부분 촉각을 나타내는 말에서 나타난다.

- (7) 간지럽다 미끄럽다 반드럽다 어지럽다 무겁다 시끄럽다
근지럽다 매스겁다 부드럽다 굳시럽다 반지럽다 등

‘-갑/ 겹’의 형태는 미각을 표현하는 낱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8) 달갑다 차갑다 짜갑다 쓰겁다

‘-다랗’에 의한 파생은 주로 사물의 상태를 표현하는 감각어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랗’은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해서 그 뜻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는 접미사이다.

(9) 곱다랗다 커다랗다 좁다랗다 찼다랗다 굵다랗다
놀다랗다 기다랗다 가느다랗다 등

‘-직하’의 형태는 [+적극성]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그런데 이 ‘-직하’에 의한 파생의 특징은 ‘-다랗’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도가 큰 형용사에만 쓰이고, 정도가 작은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는다.

<표 9> ‘-직하’에 의한 파생

구분	예시
ㄱ	큼직하다 길직하다 되직하다 갇직하다 굵직하다 높직하다 널찍하다 묵직하다 등
ㄴ	작직하다 짧직하다 뭉직하다 얇직하다 가늘직하다 낮직하 다 좁직하다 가볍직하다 등

‘-콥하’의 형태는 주로 말하는 이의 주관이나 심리와 관계가 깊은 접미사로 미각어에 주로 나타난다.

(10) 달콤하다 새콤하다 매콤하다
단콤하다 새콤하다

‘-롭’에 의해 파생된 감각어는 우리말에는 ‘다사롭다’가 있으며, 한자로는 ‘향기(香氣)롭다’와 ‘감미(甘味)롭다’가 있을 뿐이다. 또한, ‘-얹/얼’가 쓰이는 파생어는 파랗다, 빨갳다 등처럼, 색감을 표현하는 시각어에 주로 쓰인다.

(11) 뽀얗다 하얗다 빨갳다 뿌옇다 꺼멓다 서느렇다

‘-스럽’의 형태는 청각을 나타내는 낱말에 주로 쓰인다.

(12) 수선스럽다 소란스럽다 요란스럽다 수다스럽다 양칼스럽다 시원스럽다.

(12)에서 ‘시원스럽다’는 주로 문장 안에서 쓰이면서 직접적인 감각어의 표현보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느낌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된다.

‘-어하다’ 형태의 형용사중에서 타동사로의 파생이 매우 생산적인데 감각어의 경우도 사물의 내는 ‘-어하다’ 형태의 파생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다음의 ㄱ과 같은 낱말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으나 ㄴ과 같은 낱말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거나 어색한 문장을 이룬다.

〈표 10〉 ‘-어하다’의 형태 파생

구분	예시
ㄱ	매워하다 시려워한 눈부셔하다 차가와하다 뚱어하다 가벼워하다 무거워하다 목말라하다 더워하다 서늘해하다 뜨거워하다 포근해하다 추워하다 따뜻해하다 쓰라려하다 시끄러워하다 등
ㄴ	귀하다 밝아하다 넓어하다 검어하다 짜하다 희어하다 멀

어하다 차위하다 세하다 달아하다 붉어하다 길어하다 등

<10>의 ㄱ과 ㄴ을 감각 중 종류별로 구분하여 나열해보면, 주로 촉각으로 사용된다. 그중 온도를 표현하는 감각과 미각을 표현하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쓴다. 이에 반해 시각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쓰임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촉각 또는 미각이 시각보다 개인의 주관적 심리에 의한 판단이 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0>의 ㄱ과 ㄴ을 감각의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주로 촉각 그중에서도 온도감각과 미각을 표현하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쓰이는데 비하여 시각을 나타내는 말들은 쓰임이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실은 촉각이나 미각이 시각보다 주관적 심리에 의한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 (13) ㄱ. 그는 발을 시려워했다.
 ㄴ. 그는 길을 멀어했다.

예문(13)의 ㄱ은 경험을 통한 주관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능하다. 한편 ㄴ은 대상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이므로 비문이 된다.

iii. 복합구조

복합구조에는 $[N + V]$ V의 형태, $[V + V]$ V의 형태, 그리고 $[V + \text{Suf} + V]$ V의 형태가 있다. 여기서 $[V + \text{Suf} + V]$ V의 형태에는 $[V + t_1 + V]$ V와 $[V + na + V]$ V의 형태가 나타난다.

$[N + V]$ V의 형태는 주로 촉각을 표현하는 단어에 주로 존재한다. 이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4) 귀-따갑다 목-마르다 낮-붉히다 숨-막히다 애-타다

귀-아프다 목-감기다 낮-뜨겁다 숨-차다 속-타다 등

[V +V] V의 형태는 주로 시각을 나타내는 낱말에 많이 분포한다.

(15) 검-푸르다 희-멀겁다 높-푸르다 질-푸르다 굳-세다
검-붉다 희-맑다 해-말갱다 길-둥글다 옅-붉다 등

[V +ti + V] V와 [V +na + V] V의 형태는 감각동사에 나타나는 단어형성의 특징으로써 그 복합구조에서 ‘-디, -나’ 등의 어미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복합어가 있다. 이때 ‘-디-, -나-’ 등의 어미는 강세의 의미를 지닌다.

(16) [V +ti + V] V의 형태

달디-달다	쓰디-쓰다	맑디-맑다	곱디-곱다
뽇디-뽇다	맵디-맵다	크디-크다	검디-검다
시디-시다	길디-길다	굵디-굵다	희디-희다
짜디-짜다	차디-차다	깊디-깊다	붉디-붉다

[V +ti + V] V의 형태 중 다음과 같은 낱말들은 잘 쓰이지 않는다.

(17) 시끄럽디-시끄럽다 조용하디-조용하다
깨끗하디-깨끗하다 떠들썩하디-떠들썩하다

[V +na + V] V의 형태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장 내에서만 반드시 관형어로만 사용된다. 하지만 비교적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도 있다.

- (18) 기나긴<기나길다> 크나큰<크나크다> 머나먼<머나멀다>
 다디단 쓰디쓴 넓디넓은
 시디신 짜디짠 더우나더운 등

- 감각어의 분포상 특질

지시의 대상이 시각적인 형용사는 주로 사물의 상태, 색채, 명암, 광택 등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는 특히, 공간성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이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간성을 조건으로 유지되는 형용사는 고유어에 의해 그 체계의 형성이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다.

- (19) 길다 크다 깊다 높다 넓다 굵다 두껍다
 짧다 작다 얇다 낮다 좁다 가늘다 얇다
 크나크다 큼직하다 조그맣다 기다랗다 가름하다
 찢막하다 좁다랗다 널따랗다 알팍하다 조그마하다

위와 같이 여러 계층에 걸친 차이를 나타내는 낱말들이 발달하여 의미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유어 형용사는 특수한 의미나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발달하지 못하였는데, 주로 이와 같은 의미기능을 한자어계 형용사들이 맡고 있다.

- (20) 광대(廣大)하다 거대(巨大)하다 위대(偉大)하다
 웅대(雄大)하다 광범(廣範)하다 중대(重大)하다
 고상(高尚)하다 등

명암의 대비를 표현하는 형용사도 공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 (21) 밝다 환하다 어둡다 캄캄하다 어둑컴컴하다
 맑다 흰하다 흐리다 컴컴하다

명암의 대비를 표현하는 고유어 중 형용사는,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서 한자어를 활용한 형용사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 (22) 명백(明白)하다 자명(自明)하다 암담(暗澹)하다 등

국어의 경우 광택을 나타내고 있는 낱말의 특징을 살펴보면, 색채 현상이 형용사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광택현상은 동사에서 의존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 (23) 반짝이다 반짝거리다 빛나다 윤(潤)나다
 번쩍이다 번쩍거리다 반짝반짝하다 광(光)나다 등

색채어로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형용사도 모두 고유어로 다양한 발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음과 모음의 대립으로 인한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 (24) 파랗다 하얗다 까맣다 노랗다 빨갳다
 푸르다 희다 검다 누르다 붉다 등

또한 접두사와 접미사에 의한 색채 형용사도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 하나의 예로 붉은색을 나타내는 낱말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 (25) 불다 빨갳다
 불그레하다 벌겋다
 불그데데하다 시뻘겋다
 불그죽죽하다 새빨갳다 등

촉각의 경우 온도감각의 형용사에서도 고유어는 매우 발달하였는데 한자어는 몇 개의 형용사가 있을 뿐이다.

- (26) 뜨겁다 따끈하다 미지근하다 산산하다 차다
 따갑다 뜨끈하다 미적미적하다 시원하다 차갑다 등
 뜨뜻하다 덥다 서늘하다 선뜻하다
 따뜻하다 무덥다 싸늘하다 시리다
 따스하다 따뜻미지근하다 선선하다 춥다

- (27) 한냉(寒冷)하다 냉냉(冷冷)하다
 냉량(冷凉)하다 온화(溫和)하다 등

이들 외에도 촉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피부감각, 통각, 압각, 충량감 등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고유어는 발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어 형용사는 드물다.

- (28) 딱딱하다 부드럽다 축축하다 쭈시다 저리다
 보드랍다 촉촉하다 아프다 쓰리다 따갑다 등

미각에 있어서도 고유어 형용사는 매우 발달되어 있다.

- (29) 맵다 쓰디쓰다 짜다 뽀다 시금시금하다
 매콤하다 달다 짹짹하다 고소하다 새콤하다

쓰다 달콤하다 짹짹하다 구수하다 시금털털하다

이러한 예시 중에서도 새콤하다, 고소하다, 구수하다 등은 미각과 후각이 함께 포함된 언어들이다 이에 비해 한자어로 구성된 형용사는 극히 드물다. 다만, 감미롭다는 존재한다. 후각을 대상으로 하는 낱말에는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30) 고리다 노리다 비리다 냄다
 구리다 노릿하다 비릿하다 향기(香氣)롭다
 퀴퀴하다 누리다 매캐하다 향(香)긋하다 등

끝으로 청각을 활용하는 형용사에는 상징어로 된 의성어는 아주 많다. 그러나 감각어는 고유어, 한자어 두 가지 모두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각표현을 위해 다른 감각으로부터의 전이현상이 두드러진 것도 청각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31) 솔다 귀아프다 요란(搖亂)하다
 시끄럽다 귀따갑다 소란(騷亂)하다
 고요하다 은은하다 소란(騷亂)스럽다 등

(31)에서 한자어 형용사는 정적이라기 보다는 동적인 형용사이다.

- 감각어의 낱말체계

감각어 중에서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볼 때, 낱말의 구조가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냉온감각어’이다. 국어에서 촉각언어 중에서도 냉온감각어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32) 뜨겁다 뜨끈하다 따뜻미지근하다 서늘렁다 춥다

싸늘하다	차다	따갑다	뜨뜻하다	미지근하다
쌀쌀하다	훈훈하다			
따뜻하다	덥다	미적지근하다	씨늘하다	
뜨뜻하다	무덥다	서늘하다	썰렁하다	
뜨스하다	따끈하다	산산하다	시원하다	
따사하다	뜨습다	선선하다	시리다	

이들은 물건의 온도가 그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을 지시의 대상으로 한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대부분은 물건의 온도와 그 감각을 함께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춥다’는 물건의 온도를 서술하는데 쓰이지 않는다. ‘나는 춥다’와 ‘그는 추웠다’는 가능하나 ‘책이 춥다’나 ‘밤이 춥다’는 불가능하다. 다만 ‘날이 춥다’나 ‘날씨가 춥다’는 가능하다, 이 문장도 경험주의 감각이지 기체의 온도를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기가 춥다’는 잘 쓰이지 않는다.

손, 발 따위가 시리다도 사람의 감각만을 지시대상으로 지정한다. 예를들어, 종이가 시리다나 밤이 시리다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춥다와 시리다는 인체의 한 기관에서 느낀 감각인지. 아니면 특정한 인체의 한 부분이 아닌 전신이나 막연한 감각을 지시하느냐에 따라 구분지어 사용한다. 즉 ‘손이 시리다’ ‘이가 시리다’ ‘발이 시리다’ 등은 가능하나 ‘오늘은 참 시리다’나 ‘나는 대단히 시리다’라고 사용하지는 않는다. 단, ‘나는 시리다’가 문장 내에서 인체의 특정 부분에 대한 서술일 시에는 가능하다. 즉, ‘손이 시리다’를 뜻하는 ‘나는 (손이) 시리다’와 같은 표현은 가능하다.

‘춥다’와 ‘차다’ 또한 그 뜻은 온도의 높음 또는 낮음과 관계된 형용사이지만, 활용된 예시를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희승(1981)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춥다’는 기후가 차다로, ‘차다’는 물체의 온도가 낮다 또는 추운 느낌이 있다와 같이 풀이하

고 있는데 이러한 물이로는 그 본래의 의미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 (33) ㄱ. 날씨가 춥다. (추운 날씨)
 ㄴ. 날씨가 차다. (찬 날씨)

- (34) ㄱ. *물이 춥다. (*추운 물)
 ㄴ. *물이 차다. (찬 물)

- (35) ㄱ. 나는 발이 춥다. (*추운 발)
 ㄴ. 나는 발이 차다. (찬 발)

위 예문에서 ‘춥다’는 경험주의 구관적인 온도의 높낮이에 의한 감응도를 말하며, ‘차다’는 객관적인 온도의 높낮이를 뜻한다. 즉 ‘차다’의 정도는 온도계로 수치화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춥다’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므로 그러한 객관화가 불가능하다. 물론 ‘차다’ 또한 대상과 밀접하는 경험에 따른 정도를 표시하므로 같은 온도에 대한 개인의 표현은 다르게 나타난다.

또 ‘춥다’는 인체 내부의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차다’는 인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상황을 표현하는 뜻이다.

‘춥다’와 ‘차다’의 두 차이는 춥다가 전체적인 느낌인데 반해 차다는 부분적인 표현이다. 비록 전신을 차갑게 느끼는 경우라도 이는 인체의 일부인 외부적 문제이다. 기온이 떨어져서 날씨가 차가워도 춥지 않을 수가 있으며, 기온이 올라가 차갑지 않을 시에도 신체의 컨디션에 따라 춥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춥다’와 ‘차다’의 상대어에 해당하는 ‘뜨겁다’와 ‘덥다’의 경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 (36) ㄱ. 날씨가 덥다. (더운 날씨)
 ㄴ. *날씨가 뜨겁다. (*뜨거운 날씨)

- (37) ㄱ. *물이 덥다. (더운 물)
 ㄴ. 물이 뜨겁다. (뜨거운 물)

- (38) ㄱ. *나는 손이 덥다. (*더운 손)
 ㄴ. 나는 손이 뜨겁다. (뜨거운 손)

위의 예문 (42)~(44)는 (39)~(41)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43) ㄱ의 경우 ‘물이 덥다.’는 비문이나 ‘더운 물’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 (39) ㄱ. 더운 밥을 먹어라.
 ㄴ. 더운 물을 마셔라.

위 예문에서 ‘더운 밥’과 ‘더운 물’은 사용되는 범위가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된다.

온도 감각어 중에서도 의미영역이 특별한 것으로 ‘시원하다’가 있다.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시원하다’가 구체적인 온도 감각어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운 때 바람이 불어와서 몸이 서늘함을 느낄 때’와 ‘알맞게 신선할 때’라고 한다. 이것 역시 물체의 온도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감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감각어를 뜻할 때 쓰인다.

- (40) 추울 때 뜨거운 국물을 마셨더니 속이 시원했다.

위의 문장은 의미상 상충되는 내용이 동시에 공존하는 비논리적인 표현의 예가 있다. 이 경우의 ‘시원하다’는 어떤 구체적인 감각경험 후에 쓰이고 있으나, 감각내용보다는 심리적인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온도 감각어는 물리적인 온도 감각어와 생리적인 온도 감각어로 분류된다.

(41) ㄱ. 온도 감각어 중 물리적

뜨뜻하다 뜨뜻미지근하다 뜨겁다
차다 미지근하다

ㄴ. 온도 감각어 중 생리적

춡다 무덥다 서늘하다 훈훈하다
덥다 시원하다 쌀쌀하다 시리다

ㄷ. 공동 감각어 중 물리적, 생리적

따뜻하다

(41)의 ㄱ은 온도감각인 인간의 피부에 온도를 지닌 물체가 접촉할 때 느끼는 부분이다. ㄴ은 인체의 전체에서 느끼는 온도감각이다. 그리고 ㄱ이 물체에 관한 것으로 주로 액체와 고체에 대한 온도 표현이라면 ㄴ은 주로 기체와 기체 온도에 대한 표현이다. 모든 온도감각은 인간의 피부감각 기관을 통하여 비로소 인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물리적 온도도 결국은 인간의 피부감각을 나타낸 것이다

인간이 느끼는 생리적 온도표현은 자신의 인체 내 온도를 생리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온도의 척도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그 당시의 말하는 이의 상태에 의하여 크게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화시에 외부 온도와의 관계에

서 느껴지는 말하는 이의 온도감각이다. 그러나, 생리적 온도감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외계의 온도에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여름이라도 ‘추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운동을 한 후에는 겨울이라도 ‘더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생리적 온도 감각어에 있어서도 인체의 전체에서 느껴지는 온도감각의 기준은 신체의 그 당시 상태에 달려 있음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2.1.3. 의미론적 감각어

전이(轉移)란 1차적 대상물과 2차적 대상물 사이의 비슷한 점을 말하는 화자가 인지한 후 그것을 기반하여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물로 이름을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감각어 사용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는 나지만 각 감각 사이에서 전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높은 소리」 「부드러운 색」 「찬 색」 하면 시각(높다, 낮다)에서 청각(소리)으로 옮겨졌으며, 또 촉각(부드럽다, 차다)에서 시각(색)으로 옮겨 간 것이다. 이것은 의미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기저에는 심리적인 연상에 의한 연합관계를 기반으로 감각간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를 흔히 공감각현상(S-ynaesthesia)이라고 한다. 감각적인 유사의 지각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바, 감각 사이 간의 전이와 이행 현상 외에도 감각어가 어떤 대상이나 정신상태, 관념 등으로 전이될 때와 구체적 감각이 추상적 감각과, 이와 반대로 추상적 감각이 구체적 감각으로 전이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공감각어에 의한 전이 현상에는 심리적 요인이나 감각의 전이와 더불어 도달 감각을 표현한 국어가 다양한데, 첫째로 청각의 도달 감각의 전이 현상을 들 수 있다. 타 감각의 전이에 비해서 풍부하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표 11> 시각에서 청각으로의 전이

구분	항목	설명
ㄱ	고저감	높은 소리/낮은 소리
ㄴ	대소감	높은 소리/낮은 소리
ㄷ	청탁감	맑은 소리/흐린 소리
ㄹ	명암감	밝은 소리/어두운 소리
ㅁ	둔예감	둔한 소리/날카로운 소리
ㅂ	섬세감	굵은 소리/가냘픈 소리

이상은 시각적 영상과 청각적 영상간의 유사에서 공감각현상이 일어나 시각에서 청각으로 이행한 경우이다. 다음은 촉각에서 시발되어 청각으로 이행하여 가는 예이다.

(42) 촉각에서 청각으로의 전이

거친 목소리
따뜻한 소리
딱딱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가벼운 소리
무거운 소리

다음은 미각에서 청각으로 이행하여 가는 예이다.

(43) 미각에서 청각으로의 전이

구수한 소리
감미로운 소리
텃텃한 소리

둘째, 시각과 미각이 도달점인 전이이다.

시각과 미각이 각각 도달감각일 때 시각은 주로 촉각에서 전이되고 미각은 촉각과 시각에서 전이된다.

<표 12 > 감각별 전이의 예시

구분	예시
ㄱ	촉각에서 시각으로의 전이 찬 빛, 부드러운 색, 짜늘한 색, 시원한 색, 따뜻한 색
ㄴ	청각에서 시각으로의 전이 요란한 빛깔
ㄷ	촉각에서 미각으로의 전이 부드러운 맛, 딱딱한 맛, 시원한 맛
ㄹ	시각에서 미각으로의 전이 날카로운 맛, 알팍한 맛

ii. 감각과 대상간의 유사에 의한 전이

이는 감각적 경험과 어떤 대상을, 사물, 현상, 정신, 관념의 개념적 지각 사이게 전이현상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즉 감각인상과 지각간에 있어서의 유사연상이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감각인상과 지각간에 있어서의 유사연상이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국어에서 이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언어표현시에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시각어의 공감각적 전이를 들어보면 ‘맑다, 환하다, 밝다, 두텁다, 높다, 깊다’ 등은 화자의 어떠한 관념이나 정신 대상에서 전이되어 표현되며, 이는 감각과 대상 사이의 유사에 의한 전이 현상 중 하나이다.

(44) 시각어와 관념 · 정신 · 사고 · 대상간의 전이

맑은 정신

맑은 생각

맑은 정신

맑은 세상

맑은 사리

환한 이치

환한 세상

두터운 신의

높은 인기

높은 이상

높은 정신

깊은 마음

깊은 생각

깊은 느낌

이 밖에도 그 예들을 많이 들 수 있는데, 감각어 중 시각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청각어, 후각어, 미각어, 촉각어에서의 전이 현상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45) ㄱ. 청각어와 대상간의 차이

고요한 세상

떠들썩한 사회

시끄러운 일

ㄴ. 후각어와 대상 · 관념간의 차이

향기로운 사랑

고리타분한 이야기

ㄷ. 미각어와 대상간의 차이

매운 채찍
쓴 웃음
단 잠
달콤한 이야기
싱거운 사람

ㄹ. 촉각어와 대상·감정간의 전이

부드러운 마음
시원한 성격
매끄러운 문장
차디찬 몸짓
차가운 인간
미지근한 반응
뜨거운 정
뜨거운 박수
따뜻한 인정

이상의 예들은 단일감각이지만 복합감각으로 어떤 대상에 전이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 한자어에서 주로 나타내는데 [온후(溫厚)한 성격] 이라고 하면 촉각과 시각의 복합이요, [냉정(冷靜)한 사람] 이라고 하면 촉각과 청각의 복합이다.

공감각의 전이현상으로 인하여 어떤 관념이나 감정, 대상에의 적용은 감각이 섬세한 시인들의 작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감각어 중 특히 시각어가 많이 쓰인다. 이 가운데에도 특히 색채어가 많이 발견된다.

시 작품에서 몇 개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46)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울어진 사이로(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새파란 젊은 날을 이 물 속에 버리다니(양주동, 沙江의 노래)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정한모, 가을에)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윤동주, 자화상)

계절의 여왕 오월의 푸른 여신 앞에(노천명, 푸른 5월)

이 밖에 감각어로는 미각어, 촉각어, 후각어 드어이 나타나고 있다.

(47) 껴안고 싶도록 부드러운 봄밤(양주동, 봄밤)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거다(김수영, 사랑의 변주곡)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물약의 부드러운 어둠을 (구자운, 바다로부터 오다)

보랏빛 포도알처럼 뚝은 풍경(노천명, 슬픈그림)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한용운, 님의 침묵)

이상에서 감각어에 의한 전이현상을 일상언어와 시작품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국어에서는 감각어가 매우 발달하여 그에 의한 전이현상도 대단히 풍부하다. 이 밖에도 감각의 전이현상에는 구체적 사물의 감각과 추상적인 관념간의 유사에 의한 연상 작용이 있다. 이에, 감각어를 언어학적으로 분류하면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세 가지 감각어로 구분할 수 있다.

2.1.4. 감각어의 분류

감각어는 언어학적 세 가지 분류 외에도 표현 대상에 따라 색채어,

미각어, 온도어, 공간감각어, 공감각적 표현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색채어란 한정된 언어로 다양한 색채를 언어로 나타낸 것을 색채어라고 한다.²²⁾ 기본동사를 색상의 정도에 따라 <높은정도>, <낮은정도>, <아주 낮은 정도>를 변별적인 특징으로 두어 색채어의 분절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푸르다, 붉다, 희다, 검다, 누르다> 계의 단일어 색채어와 <파랗다, 빨갳다, 하얗다, 까맣다, 노랗다> 계의 단일어 색채어로 1차 구분 후 복합어로 2차로 구분되며, 복합어에서는 파생어, 합성어, 합성 파생어로 또다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표 13〉 색채어의 종류 및 분류 기준

구분	내용	
단일어	푸르다, 붉다, 희다, 검다, 누르다	
단일어	파랗다, 빨갳다, 하얗다, 까맣다, 노랗다	
복합어	파생어	접두파생어
		접미파생어
	합성어	경도와 색
		색과 색
		색과 기타
	합성 파생어	색+색+접미사
		색+기타+접미사
		기타+색+접미사

미각어란 인간의 기본 감각 중 하나인 미각을 표현한 어휘를 가리키며, 특히 국어학적으로 국어의 다른 어휘와는 비교적 한자어의 사용이 적고,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맛을 표현하는 언어세계에서는 후각과 통각, 입속의 느낌들도 미각으로

22) 이서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영한 색채어 비교 분석 및 교육 방안,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표현되고 있다. 1차 구분으로는 <달다, 쓰다, 시다, 짜다, 뚱다, 맵다, 복합미각>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통사적 결합어로 파생되는 것이 다른 감각어와 유사하다.

〈표 14〉 미각어의 종류 및 분류 기준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뜻
달다	달콤하다, 달큰하다, 단물 등	맛이 달다, 기분이 좋다 등
쓰다	쌈쌀하다, 씹실하다, 씹쓸하다, 씹섬하다 등	맛이 쓰다, 싫거나 괴롭다 등
시다	시큰하다, 저릿하다, 새큰하다, 시근시근하다 등	맛이 시다, 강한 빛으로 습벅습벅 찢리는 듯하다 등
짜다	짹짹하다, 씹쌀하다, 짹짹하다, 짹질하다 등	맛이 짜다, 마음에 달갑지 않다 등
뚱다	뚱적지근하다, 뚱직스레하다, 뚱떠름하다 등	맛이 뚱다, 행동이 덜되고 못마땅하다 등
맵다	매콤하다, 매콤하다, 매웁다 등	맛이 맵다,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 등
복합미각	달다+시다	맛이 조금 달고 새금하다
	달다+쓰다	맛이 조금 달고 씹슬하다
	달다+짜다	맛이 조금 달고 짹조름하다
	시다+뚱다	맛이 시고 자극적이다
	짜다+건건하다	음식의 맛이 조금

	거세고 짜다
--	--------

온도어란 촉각 가운데 냉과 온의 감각을 대상으로 하는 감각 어휘이다. 특히 온도어는 순수 국어의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으며, 온도의 변화에 따른 어휘가 다양하고 균형잡혀 있다는 특징이 있다.²³⁾ 아래의 표는 참고문헌에 따라 온도어의 종류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15〉 온도어의 종류 및 분류 기준

구분	내용
온각 온도어	후덥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후터분하다, 후더분하다, 훗훗하다, 확확하다, 핫핫하다, 후끈하다, 뜨끔하다, 뜨끈하다, 따끈하다, 뜨근하다, 따근하다, 뜨스하다, 뜨지근하다, 드스하다, 뜨뜻하다, 뜨듯하다, 포근하다, 다사하다, 미적지근하다, 미지근하다, 매지근하다, 밍근하다, 설미지근하다, 슬미지근하다, 실미직근하다 등
냉각 온도어	으스스하다, 어스스하다, 오싹하다, 아싹하다, 오스스하다, 아스스하다, 시리다, 차근하다, 척척하다, 싱경싱경하다, 습습하다, 쓸쓸하다, 쌀쌀하다, 썩늘하다, 썩느렁다, 썩느랏다, 썩늘하다, 썰렁하다, 쌀랑하다, 서느렁다, 서늘하다, 섣뜩하다, 섣득하다, 산뜩하다, 산득하다, 섣섣하다, 산산하다, 사느랏다, 서느렵다, 사늘하다, 설렁하다, 살랑하다, 시원스럽다, 시원하다 등

공간감각어란 공간적인 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속성형용사 여덟 개의 분류를 뜻한다. 물리적인 공간을 표현하지만, 의미가 같던 공간감각어의 기본의미에서 파생의미로 전이될 때 의미적 양상이 변화하기도 한다.²⁴⁾ 아래의 표는 공간감각어를 정리한 것이다.

23) 정길영, 한국어 온도어에 대한 고찰, 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 1997.

24) 민영란, 한중 공간감각어의 다의 구조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표 16〉 공간감각어의 종류 및 분류 기준

분류	구분	분류	구분
대소	크다/작다	고저	높다/낮다
장단	길다/짧다	원근	멀다/가깝다
심천	깊다/얕다	광협	넓다/좁다
조세	굵다/가늘다	후박	두껍다/얇다

공감감적 표현은 두 사물이나 관념 간의 공유적인 특성과 형태의 유사성을 유도하기 위해 감각어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공감각은 감각의 기저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감각작용은 대상의 지각에 있어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감정을 향유한다.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다섯 가지의 감각을 다루는 감각어가 모두 해당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온도어이자 촉각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을씨년스럽다’는 ‘분위기가 몹시 쓸쓸하고 스산하다’ 또는 ‘보기에 살림이 매우 가난하다’ 등으로 의미가 전이되어 사용되는 식이다. 이러한 감각의 전이는 문학사적 내용을 바탕으로 시대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2.2. 신조어의 의미

신조어란 사회의 변화 흐름과 발전 양상에 따라 어떠한 개념, 현상, 사물 등의 등장으로 새롭게 사용되는 언어를 뜻하며, 새로 만들어지거나 의미가 변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²⁵⁾ 이러한 한글의 확장가능성을 바탕으로 신조어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방송, 인플루언서를

위논문, 2009.

25) 김환, 임진희,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중심으로 신조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의 변화 양상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신조어가 탄생하는 것이다. 신조어는 1994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신어의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분석 및 정리하고 있다. 1994년 당시의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신조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개수는 1,589개였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자어였으며, 897개로 56%를 차지한다. 고유어와 한자어를 접목한 신조어는 217개로 14%, 외래어는 207개로 13%, 한자어와 외래어를 접목한 것은 136개로 9%를 차지했다. 이중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는 단어에는 가격파괴, 가구원, 가맹점,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²⁶⁾ 이처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감각어 외에도 의사소통이 다양해지면서 단기간에 사용되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신조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세계인이 공유하는 많은 신조어가 생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신조어들이 오랜 시간 정착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상징하는 표현 언어인 것은 분명하다. 신조어의 발전 및 변화는 대중문화에도 크게 활용되며 빠르게 변동시켰으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살펴보면, 언어의 사용과 쓰임의 축약이 일어나며 구어체와 문어체의 경계선이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접근은 낮아지고 오락적 기능이 강화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20년 국민의 언어의식조사를 살펴보면, 81%의 국민이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26)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main.do>

27) 국립국어원,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조사, 2020.



〈그림 1〉 신조어 사용 빈도

이러한 대중성과 오락성, 문화성에도 불구하고 신조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신조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는 대답은 65%에 이르렀으며, 신조어의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대답은 43%에 이른다. 하지만, 한글 파괴 행위라는 의견 외에도 한글을 창조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분명한 점은, 신조어의 등장과 쓰임은 단순히 오락적이고 강조하는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점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기능도 겸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조어는 같은 흥미 요소나 공감대, 취미를 가지는 대중들 사이에서 생산되거나, 개인이 새롭게 창작한 것이 큰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착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신조어의 분석은 사회 흐름과 한글 어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²⁸⁾ 또한, 최초의 언어는 원시시대의 동굴벽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사냥감과 사냥 방법에 대한 정보 위주였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농업 사회의 도래로 인해 동굴 상형문자, 표의문자, 표음문자 등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28) 김남중, 인터넷 일본어 신조어의 특징과 생성배경에 관한 연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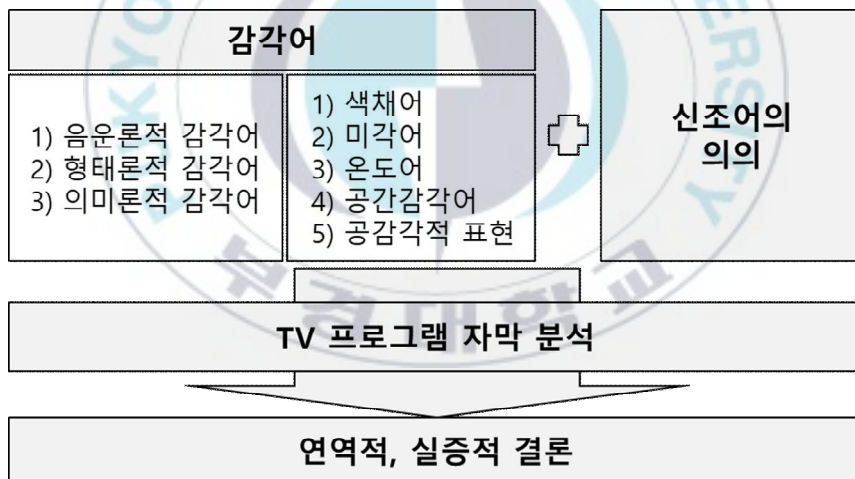
언어 공동체는 서로 다른 언어를 고안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경향도 고안하며 창조되었다. 덴마크의 언어학자 오토 예스페르센은 단어의 탄생에 대해 흔히 단어들을 덧붙이거나, 단어들에서 어떠한 것을 빼거나, 단어들을 새로이 창작하거나,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등 네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빌 브라이슨은 언어는 과학이 아닌 유행이라고 언급했으며, 지역 마다의 사투리와 욕설, 말놀이까지에도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현상과 흐름을 따른다고 하였다.²⁹⁾ 이에, 신조어는 세계 각국 언어의 기본 유래를 바탕으로 조합되거나 분리되며 발전한 것, 말놀이 또는 욕설이라는 언어 표현의 장르를 포함한 것,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므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9) 빌 브라이슨, 언어의 탄생, 유영 출판사, 2021.

3. 분석모델

이론적 배경을 통해 감각어와 신조어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개념 정립과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모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감각어는 기능의 구분에 따라 음운론적 감각어, 형태론적 감각어, 의미론적 감각어 세 가지와 표현 대상에 따른 색채어, 미각어, 온도어, 공간감각어, 공감각적 표현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신조어가 가지는 사회 문화적, 시대적 표현 양상의 내적 의미를 토대로 현재 방영 중인 TV 프로그램 자막에서 신조어로 구성된 감각어가 사용된 장면을 대상으로 연역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결과 및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2〉 분석모델

4. TV 프로그램 자막의 감각어 의미 분석

본 장에서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세 가지 신조어 구분으로 나눠 나열하였다. 분석 대상의 회차와 순서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캡처한 장면에서 나오는 자막에 드러난 신조어 뜻을 밝히고, 색채어, 미각어, 온도어, 공간감각어, 공감각적 표현 다섯 가지 중 하나를 밝힌 후 맥락을 분석하여 감각어의 신조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실태와 의의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4.1. 음운론적 감각어의 신조어

음운론적 감각어의 신조어는 언어가 발현하는 발음을 빌려 생성되기에 중독성 있고 오락성 있는 언어의 생성이 가능하다. 이에, 대중에 유행되는 오락성과 대중성이 크게 요구되는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신조어의 형태이다.



〈그림3〉 신조어 남사친

위의 그림은 <연애의 참견> 중 한 장면이다. 남자 사람 친구라는 언어를 줄인 ‘남사친’과 고민하는 여자라는 뜻의 ‘고민녀’ 두 가지의 음운론적 형태의 신조어를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연애 중 겪는 고충을 토로하고 상담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다수 발견된다.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과 연애를 방해하는 ‘남사친’ 또는 ‘여사친’은 시청자의 공감을 한층 돌아주는 공감각적 감각어의 신조어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신조어 입속 PARTY

본 장면은 <맛있는 녀석들>의 한 장면으로써 음식을 먹을 때의 미각적 희열을 ‘입속 PARTY’라는 음운론적 감각어를 사용하였다. 각 단어가 내포하는 뜻을 합하며 ‘PARTY’라는 발음을 통해 입속에서 향연하는 미각어를 효율적으로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언어의 활용 실태를 알 수 있다. 한편, ‘입속’은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빈 곳이라는 하나의 단어이기에 띄어쓰기가 불필요하다. 이는 제작진의 실수로 판단되며, 신조어를 사용할 때도 기본적인 문법의 사용에는 주의해야 진정한 신조어

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2. 형태론적 감각어의 신조어

형태론적 감각어의 신조어는 단어의 형태를 그대로 빌려 조합하여 만들어지기에 하나의 신조어 안에 다양한 뜻을 내포하기가 유용하다. 그 유용성과 포용성 특성으로 TV 프로그램 자막 외에도 생성되는 신조어들은 형태론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5〉 신조어 폴뽕모드와 취향저격

위의 그림은 <맛있는 녀석들>의 한 장면이다. 형태론적 감각어로 분류할 수 있는 신조어 ‘폴뽕모드’와 ‘취향저격’ 두 가지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폴뽕모드’는 위축되다의 뜻을 지닌 쫄다와 덩치가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뽕보의 뽕과 영어 mode를 한국어로 표기한 모드를 합친 단어로써, 형태론적 감각어에 속한다. ‘취향저격’ 또한 기호를 이르는 취향과 대상을 노려서 치거나 총을 쏘는 의미의 저격을 합친 신조어으로써, 대상의 기호에 부합한다

는 뜻을 지니고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존재하던 단일어에 함축적인 단어를 함께 사용하며 즉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언어의 확장과 실태를 엿볼 수 있다. 본 장면의 맥락은 미지의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던 진행자들이 뜻밖에도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맛봄으로써 만족한다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맛에 대한 궁금증과 공감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즉, 이는 공감각적 신조어의 특징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신조어 떼창

위의 그림은 <아는 형님>의 한 장면이다. 본 장면에서 쓰인 신조어는 ‘떼창’으로써,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하는 군단 또는 무리를 뜻하는 떼와 노래할 창(唱) 한자어를 결합한 형태론적 언어이다. 특히, 외국어와 한자어, 한글이 함께 쓰인 점에 주목하면,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흔히 쓰이는 단어의 조합으로 함축적인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며, 단어의 창조와 확장에 있어서 언어의 장벽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장면은 가수가 히트곡을 부를 때 진행자들이 흥에 겨워 함께 노래하는 장면으로써, 공감각적 신조어를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도한다.

4.3. 의미론적 감각어의 신조어

의미론적 감각어의 신조어가 나타난 장면을 바탕으로 그 생성원리를 파악하고, 맥락을 통해 어떤 형태로 전해지는지 분석하였다. 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조합하거나, 반대되는 단어를 배치함으로써 단어가 지니는 의미를 배가한다.



〈그림 7〉 신조어 쿨병

위의 이미지는 <연애의 참견> 시즌3 중 한 장면이다. 본 장면에서 나타나는 신조어는 ‘쿨병’으로, 실제로는 쿨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쿨한 척하는 모습을 비꼬아 이르는 신조어이다. 여기서 쿨하다란 답답한 면 없이 시원시원한 면모를 이르는 말이다. 병은 질병을 뜻하는 단어이다. ‘쿨’은 감각어 중 온도어에 해당하며, 쿨과 병의 각각의 독립된 의미를 복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감각

어의 신조어에 해당한다. 장면은 여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우며 애써 시원시원한 척을 하는 남자친구를 비난하기 위하여 사용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과 분노를 효율적으로 유도하였다.



〈그림 8〉 신조어 핑크빛 기류

위의 그림은 <아는 형님>의 한 장면으로써, ‘핑크빛 기류’라는 의미론적 감각어가 사용된 장면이다. 사랑 또는 연애의 의미를 내포하는 ‘핑크빛’에 온도나 지형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의 뜻인 ‘기류’가 합쳐진 형태로 온도어와 색채어를 동시에 내포한다. 본 장면 속 두 명의 출연진이 연애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이를 꿰리기 위해 사용된 신조어이다. 한편, 놀림조로 사용된 얼레리꼴레리는 비표준어으로써, 알나리깎나리가 정확한 표기이다. 이는 신조어가 아닌 명백한 비표준어이기에 신조어를 통한 참된 흥미 유발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양해야 할 단어일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감각어와 신조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 감각어의 신조어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을 분석하여 새로운 언어의 탄생과 확장을 살펴보고 그 실태와 의미에 대해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로 신조어가 탄생하는 주요 원리인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형태로 이루어지며, 색의 표현, 온도의 표현, 맛의 표현, 공간의 표현, 공감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며, 특히 이를 인간의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확대 및 재생산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대중성과 오락성, 전이성을 토대로 널리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V 프로그램 외에도 언어의 표현이 더욱 자유로운 영상플랫폼을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 대상을 연도별로 탐색한 결과, 꾸준히 사용되는 감각어의 신조어도 다수 있었지만 짧은 기간만 사용되고 소비되는 수도 많았다는 점이 신조어의 사용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신조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속어 또는 비표준어의 사용은 지양해야 더욱 건강한 국어의 재생산이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현재의 신조어는 색채어가 온도어의 의미를 지니거나 미각어가 공감각어의 의미를 내포하는 등 의미의 전이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꾸준한 후속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다섯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대변하듯, 최근의 신조어는 직관적으로 뜻을 전달하는 용도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국가 간 언어를 초월하는 합성어의 형태도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6. 제언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감각어를 기준으로 최근 신조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며 대중성과 오락성이 보증된 TV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등장하는 신조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전연구를 통해 감각어의 형태와 종류를 고찰하였다. 한국어의 감각어는 섬세하고 깊은 감각의 차이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였다. 이에, 인간의 오감뿐만 아니라 대상의 무게감, 질량, 색채, 위치, 온도의 정도, 분위기, 위치까지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의 표현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국문학적으로 오랜 기간 연구되었으며,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확립이 공고히 되었다. 하지만 신조어는 탄생부터 활용까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며, 한글의 파괴라는 입장도 다분하다. 그러나 이전부터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되는 등, 그 범용성과 대중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인 세 개의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타 프로그램, 뉴스, 개인방송 플랫폼, 마케팅,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그 예이다. 이에,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한국어의 정립을 위해 신조어의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어의 신조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공감의 기능, 오락의 기능, 함축적인 의미 전달, 범용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과 문화의 형태 또한 답습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올바른 국어의 사용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사용된다면 더욱 가치 깊은 언어의 재생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문학적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과 발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A Study on the Reality and Significance of Neologisms' Use

- Focused on the subtitles of the TV program -

Lee, Jeong H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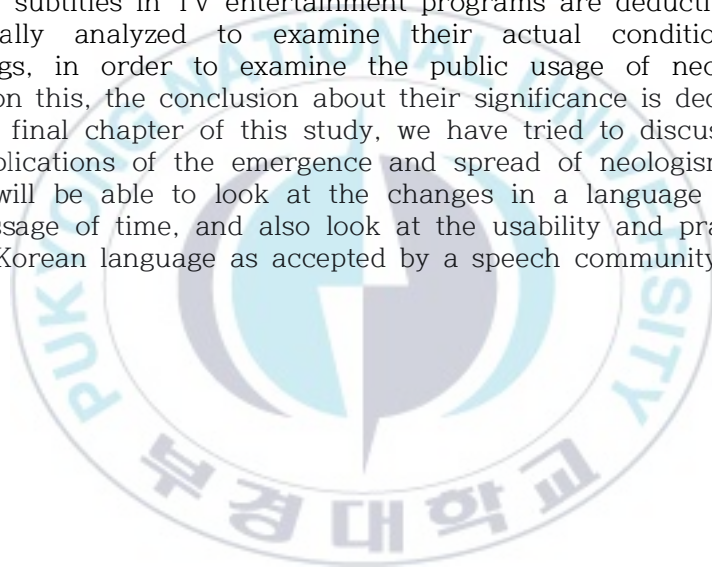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newly coined words by observing the current status of emergence and recent utilization of these words. In Korean language, in addition to the sensory words expressed in phonetic symbols and mimetic words, various types of sensory words using sound transformations are also very much developed. In literature, there is also a study on the image and pitch from these sensory words. Due to the lack of vocabulary to express the change in the attitude of a speech community to view the world, the desire to express by utilizing new word formation or transforming existing vocabulary has prevailed, and the resulting emergence of new words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researched. Yet, there are not many existing previous studies, due to such factors as the bias in the age of speech community in using new words, the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using new words by social group, the fact that new words are constantly reproduced and disappearing, and also the fact that only some of these newly created words are listed in the Korean dictionarie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ewly coined words reflect the times and are the tools to express the popularity and entertainment of that time, it was intended to place the value of research on newly coined words.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the situation in which neologisms in the form of sensory words are actively used, the meaning and utilization of neologisms were comprehended and analyz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subtitles of TV entertainment programs widely known to the public.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trie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ensory language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based on research on dictionaries and literature.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newly coined words will be identified by classifying them into three types: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semantic. Furthermore, the types of sensory word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color-describing words, taste-describing words, temperature-describing words, spatial sensory words, and

synesthesia expressions. Through this, the forms and types of sensory words are categorized.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neologisms to the contemporary period is examined, and their values and practicality are reviewed. Afterwards, an analysis model is derived, an analysis target is selected, and the data is collected. Then, based on the subjects of analysis, the forms and types of the neologisms of the sensory words, and what contents were conveyed in context are analyzed, for a conclusion to be deduced.

As for the method of this study, the sensory words are first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forms, namely,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semantic, as well as into five different types, namely, color-describing words, taste-describing words, temperature-describing words, spatial sensory words, and synesthesia expressions. Then the scenes in which neologisms were used in subtitles in TV entertainment programs are deductively and empirically analyzed to examine their actual conditions and meanings, in order to examine the public usage of neologisms. Based on this, the conclusion about their significance is deduced.

In the final chapter of this study, we have tried to discuss up to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ence and spread of neologisms. This paper will be able to look at the changes in a language through the passage of time, and also look at the usability and practicality of the Korean language as accepted by a speech community.



참 고 문 헌

- 강석준(1989). 현대 국어의 감각어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남중(2013). 인터넷 일본어 신조어의 특징과 생성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1994). 현대 국어의 단어형성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환, 임진희(2017).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주예(1982). 감각동사의 의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 국립국어원(2020).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조사.
-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main.do>
- 남지영(2009). TV 자막 언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 민영란(2009). 한중 공간감각어의 다의 구조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main.do>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mainPage.do>
- 박기천(2013). 현대 중국어 문화콘텐츠 신조어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재호(2013). TV 영상 자막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TV 예능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언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2016). 음식 맛 표현 감각어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빌 브라이슨(2021). 언어의 탄생, 유영 출판사.

송지혜(2009). 온도감각어의 통시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정수(1990). 국어 문법의 연구 2, 한신문화사.

여, 군(2010). 한중 온도감각어의 인지의미론적 대조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유쾌(2020). 한중 음식 맛 표현 감각어 대응양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서완(2013). 한국어 학습지를 위한 영한 색채어 비교 분석 및 교육 방안,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은(2014). 신조어를 활용한 중국문화지도방안:외국어계열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이정해(2014). 중국의 사회변화와 신조어 생성관계 연구 : 2006년 이후의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중국학과, 석사학위논문.

임지룡(2003).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정길영(1997). 한국어 온도어에 대한 고찰, 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

정재운(1989). 우리말 감각어 연구, 한신문화사.

주효아(2020). 한중 온도 관련 감각어 의미의 대조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석사학위논문.

천기석(1984). 국어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연구, 서울:형설출판사.

최현배(1987). 우리말본, 서울:정음문화사.

허웅(1982). 국어음운학, 정음사.